

방통위 중앙아시아(우즈벡·카자흐) 출장 결과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의 방송통신 정책협력 강화 등 -

◆ 기 간 : 2017. 2. 13. (월) ~ 2. 18. (토), 4박 6일

◆ 방문국가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아스타나)

2017. 3.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내용	2
1.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 방문	2
2.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방문	6
3. 우즈베키스탄 통신사 EVO·ET 방문	9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방문	11
5.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방문	13
6.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방문	16
7.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방문	19
8.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방문	22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24
1. 시사점	24
2. 특이사항	25
IV. 첨부자료	27
1. 출장 동정 보도자료(2.12)	27
2. 현지 보도자료(2.16)	28
3. 주요 언론보도 현황	30

I. 출장 개요

1. 목적

- 중앙아시아 방송통신규제기관 및 방송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방안 모색 및 양국간 협력 방안 논의

2. 기간 : '17년 2월 13일(월) ~ 2월 18일(토), 4박 6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아스타나)

- 우즈베키스탄 : 정보통신개발부, 국영방송, EVO, 고려인문화협회 등
- 카자흐스탄 : 국영방송, 정보통신부, 고려인협회

4. 출장자 인적사항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 재 홍
2	운영지원과	부위원장 비서관	김 성 환
3	방송정책국	행정사무관	이 소 연
4	한국인터넷진흥원	글로벌협력팀장	강 혜 영

5. 주요 활동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와 국영방송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간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및 방송통신분야 정책 정보 공유

※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시 K-pop 공연 중계 협력 방안 모색 및 EBS 교육 방송 시스템 등을 소개

- 고려인 정주 80주년 등을 고려하여 우즈베크·카자흐스탄 고려인문화 협회를 방문하여 고려인대상 방송 콘텐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EBS 교육 콘텐츠 1,800여편을 기증

II. 출장 내용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4(화) 11:00~12:30, 우즈벡 정보통신개발부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우미드존 바흐티야로비치 알라모프 차관, Sanjar Alimov 국장 등

< 정보통신개발부 개요 >

○ 개 요

-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MITC)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신 정책 수립과 규제 총괄 주무부처로, '15년 2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

○ 주요업무

- 정보기술·통신에 대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 전자정부 도입 및 발전 도모
-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준의 국가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추진 및 관련 프로젝트 총괄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도모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주요 인프라 보호 추진
- R&D 등 정보통신·방송 분야 인력양성

○ 주요내용 요약

- 한·우즈벡 수교 25주년,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공동제작 방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중계 지원 방안 등 양국간 방송통신분야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세 부 면담내용

- (개요) 우즈벡 정보통신개발부는 정보통신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전자정부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김남석 차관을 우즈벡 정보통신개발부 차관으로 임명하여 전자정부사업 등 수 많은 IT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를 통해, 우즈벡은 지난 2년 동안 UN 전자정부 평가 120위 순위를 80위까지 상향시켰음
 - 한국은 아주 큰 경험을 갖고 있어 배울게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임

< 우즈벡 정보통신개발부 면담 사진 >



- (양국 협력방안) 2017년은 한·우즈벡 수교 25주년과 고려인 이주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깊이 있게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있음
 - 우즈벡 정부와 국민들은 고려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며,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연대감을 깊이 느끼고 있음
 - 우즈벡 전자정부사업 발전을 위해 한국 행자부와 많은 협력을 하였으며, IT분야 발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력도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번 방통위 대표단의 방문은 우즈베크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과 3천명 이상의 교민, 고려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방송 통신분야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함
-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공연 등을 우즈베크 정부·국영방송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임
- (방송정책) 현재 우즈베크는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현황은 약 80% 정도 진행되었으며, 2017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
- 국영방송 NTRC를 통해 기본채널 4개(종합, 청소년, 수도권, 스포츠) 등 15개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고, 멀티플렉스 패키지로 60개 채널은 유료로 운영
- 방송채널 신설 등에 필요한 주파수 배정 등은 정보통신기술개발부에서 담당하고, 방송 편성 및 채널 운영은 국영방송에서 전담
-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높은편이나 현재까지는 외국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음
- (EBS 교육채널 모델 제안) 지상파TV 채널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주파수 1개로 여러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은 이러한 주파수 활용을 통해 공영 교육방송을 지상파TV로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방송은 국민들에게 일생동안 지식과 교양 등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음
-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과학·외국어 등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음
- 우즈베크 정부와 국영방송에서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콘텐츠 채널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UHD 방송 및 5G 서비스의 실용화 등이 가능하며, 우즈벡 국민들을 위해 국영 방송이 한국 현지 중계시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우즈벡은 아직까지 IT 분야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정보 통신 최강국인 한국과 기술적 협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함
- 우즈벡은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과거 대우자동차 우즈벡 공장 건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통신사인 KT가 출자한 EVO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우즈벡 정보통신개발부 면담 사진 >



- (협력 관계 지속) 한국은 우리 우즈벡 독립을 인정한 국가이며, 제1대 카리모프 대통령은 한국은 친밀한 국가라고 인정하였음
- 자동차 현지 공장 설립,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우즈벡 정부와 국민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음
- 수교 25주년과 고려인 이주 80주년 등을 맞아 우즈벡 현지 교민 및 고려인 등의 행사에 많은 지원을 요청드리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UHD 방송, 5G 서비스 등의 첨단 기술을 경험하기 바랍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NTRC)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4(화) 15:00~16:30, 우즈베크 국영방송(NTRC)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히크마툴라예브 누스라툴라 부사장, 툴라가노프 노디르 국장 등

〈 국영방송 NTRC 현황 〉

○ 개 요

-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전국 단위 방송 채널인 Uzbekistan, Yoshlar, Tashkent, Sport 등 4개의 TV 채널과 라디오 채널을 보유

○ 주요 채널 현황

- ① 채널 1(Uzbekistan) : 우즈베키스탄 전역과 주변국에서 시청이 가능, 국내 정치·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방송
 - ※ 모든 제작 언어는 우즈베키스탄어이며, 주요 프로그램 90% 이상이 자체 제작프로그램이나 BBC, VOA 등 해외 뉴스 방송도 일부 제공
- ② 채널 2(Yoshlar) : ‘젊은 채널’이라는 의미로 어린이·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의 젊은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매일 4-5편의 시리즈물과 1편 이상의 예술 영화를 방영
- ③ 채널 3(Tashkent) :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 및 주변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며, 수도권 지역 뉴스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
- ④ 채널 4(Sport) : 국제방송채널에서 스포츠 전문 채널로 변경되어 주로 남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프로그램 방송

○ 주요내용 요약

- 우즈베크 국영방송(NTRC) 운영 현황,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협력방안,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방안 및 EBS 교육채널 모델 제안 등 양국간 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세부 면담내용

- (개요) NTRC는 우즈벡 국영방송으로 TV 26개 채널과 라디오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 TV 채널 26개 중 14개는 지역방송이며 하루 TV 542시간, 라디오 207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음
 - 방송국 종사자는 약 5천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채널로는 우즈베키스탄(채널1, 종합), Yoshlar(채널2, 어린이·청소년), 타슈켄트(채널3, 지역), 스포츠(채널4, 스포츠) 등이 있음
 - 현재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80% 정도 전환되었고 금년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우즈벡 국영방송(NTRC) 면담 사진 >



- (콘텐츠 협력 제안)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및 사후규제 기관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규제까지 하고 있음
 - 2017년은 한·우즈벡 수교 25주년,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정부 및 방송사간 프로그램 제작과 각종 행사 등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양국 상호간 방송장비 지원, 현지 제작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KBS 우즈벡 현지 프로그램 제작) 한국 공영방송 KBS는 수교 25주년·고려인 정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과 한류 공연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중계차 제공 등 현지 제작 지원 등 포함)
- NTRC 부사장 등 관련 책임자 등은 우즈벡 현지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대중 가요 등이 매우 인기가 있음을 설명하고,
- 특히, KBS가 우즈벡 현지에서 공연 행사 등을 제작할 경우 NTRC에서 중계차 제공 등 방송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

< 우즈벡 국영방송(NTRC) 면담 사진 >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UHD 방송 및 5G 서비스의 실용화 등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우즈벡 방송사의 자국 경기 현지 중계시 한국 정부가 지원 가능함을 설명
- 우즈벡은 현재 동계올림픽 중계권 구입 등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적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EBS 교육채널 제안) NTRC에서 교육전문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각 채널별로 유아, 청소년,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편성

- 한국 EBS 교육방송 운영시스템은 칠레·베트남·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관심이 많아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 EBS는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지식·교양·학습 등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특정분야의 교육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여 학교 교육의 보완 기능을 담당함
- EBS는 교육 콘텐츠는 미국 공영방송 PBS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방송국 설립에 대한 의향이 있다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음
- 우즈벡 국영방송 관계자는 EBS 교육채널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운영시스템을 직접 보고싶다는 의견을 제시함

우즈베키스탄 통신사 EVO · ET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5(수) 10:30~12:00, EVO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김종상 EVO 사장, 김병채 EVO 국장, 홍동기 ET CFO, 이상기 ET 국장

< EVO 및 ET 현황 >

구분	EVO	ET
설립년도	2007년 7월	2003년 9월(2007년 12월 인수)
주주구성	KT Dutch 100%	KT Dutch 90.98%
주요사업	무선인터넷(LTE-TDD)	유선인터넷, 전용회선, 전화
임직원수	217명	377명

0 주요내용 요약

- KT가 투자한 우즈벡 유·무선 인터넷 기업인 EVO, ET를 방문하여 우즈벡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

□ 세부 면담내용

- (KT 투자현황) KT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유·무선 인터넷 기업 법인은 EVO, ET, TPS가 있음
 - EVO는 타슈켄트 및 16개 지방도시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ET는 유선 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현재 인터넷 사업을 중심으로 ICT/콘텐츠/커머스/광고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중에 있음

< 우즈베크 EVO·ET 면담 사진 >



- (우즈베크 통신사업 현황) 우즈베크는 2015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은 48%,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7.7% 성장 초기 단계
 - 국영기업 우즈베크텔레콤이 대다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시장점유율(매출기준)은 EVO가 7%, ET가 14%를 차지
 - 모바일 보급률은 2015년 기준 80%이며, 무선 브로드밴드는 54%로 3G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중
 - EVO는 프리미엄 사업자로 사업방향을 포지셔닝(최소 월 5만원 이상) 하고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5(수) 15:00~16:30, 고려인문화협회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박 빅토르 니콜라에비치 회장, 리타박 NTRC PD 등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 현황 〉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는 타슈켄트 등 각 지역에 약 18만명 정도 거주
- 현재 박 빅토르 니콜라에비치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이 고려인문화협회 회장
- 우즈베키스탄 각 지역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한·우즈베크 대통령 합의 사항인 <한국 문화예술의 집*>을 건립 추진중
 - * 우즈베키스탄내 고려인들의 한국 전통문화 전수 및 한국 문화 전파 등을 위해 동 건물 건설을 추진, 우즈베크측은 부지 제공 및 기자재 면세 통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측은 건축 경비 일부를 부담
- 우즈베크 고려인 관련 유적으로는 우즈베크 최고회의 대표 및 소련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김병화(1905~1974) 농장이 있음

0 주요내용 요약

- 우즈베크 고려인문화협회를 방문하여 우즈베크 고려인 동포현황 및 정착과정,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 논의하고, EBS 교육 콘텐츠 1,800여편을 기증함

□ 세부 면담내용

- (고려인 정주 80주년·수교 25주년 행사) 우즈베크 고려인문화협회는 수교 25주년·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하기 위해 ① 고려인·교민 합동 체육대회, ② 고려인 정주 관련 백서 발간, ③ 우즈베크 지역 순회 문화 공연, ④ 다큐멘터리 제작(50분) 등을 준비

- (방송 콘텐츠 제작) 우즈벡 고려인문화협회는 국영방송 NTRC와 공동으로 수교 25주년·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50분)를 기획·제작 예정(담당PD 리타박, 고려인프로그램 담당)
- 동 프로그램 제작시 한국 방송사와 공동제작 등에 대해 제안하였으나, 우즈벡 국영방송 편성방침에 따라 공동제작은 어렵다고 설명
- 다만, 한국 방송사가 고려인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고려인문화협회에서 관련 자료 조사 등 현지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고려인문화협회는 우즈벡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국영방송 NTRC 제1채널을 통해 격주로 15분 프로그램인 '친선'을 방송하고 있으며, 주로 고려인 2~3세를 대상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을 방송

< 우즈벡 고려인문화협회 면담 사진 >



- (EBS 콘텐츠 기증) 김재홍 부위원장은 우즈벡 고려인문화협회 박빅토르 회장에게 EBS 교육 콘텐츠 1,800편을 기증
- 고려인문화협회는 우즈벡 각 지역에서 3개의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KOICA 협조를 얻어 국영채널을 통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50회 방송한 바 있음
- ※ EBS 기증 프로그램을 국영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각 지역 센터 교육장을 통해 배포할 예정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5(수) 17:30~18:30, 한인회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김도윤 한인회 회장, 장형배 우즈벡 한인일보 편집국장

< 우즈베키스탄 한국 교민 현황 >

- 우즈베키스탄 한국 교민은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약 3,000여명 정도 거주
- 우즈벡 한인회는 한글교육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KDY 호텔 김도윤 대표가 회장직 수행
- 우즈벡내 대형 인프라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함에 따라 약 600여명의 기술인력도 장기 체류중이며, 인하-타슈켄트 대학 개교(2014년), 수르길 프로젝트 운영 등에 따라 한국 교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0 주요내용 요약

- 우즈벡 한인회를 방문하여 한국 교민현황, 한글 교육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함

< 우즈벡 한인일보 보도 현황>



◆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협력 강화

김재홍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교류 협력, 한류 콘텐츠 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와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를 방문, 이동통신서비스·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즈베키스탄(NTRC)·카자흐스탄(Khabar) 국영방송 사장과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편성 현황, 지원 정책, 교육채널 운영 시스템 등을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김로만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정착 과정과 현황 의견을 교환하고, 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역사와 한글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EBS 교육 콘텐츠 1800편을 기증한다.

□ 세부 면담내용

- (개요) 한인회는 한국 교민을 위해 의료서비스, 한글교육 등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일간지인 한인일보를 발간하여 교민소식, 한국 뉴스, 우즈벡 뉴스 등을 교민들에게 매일 신속하게 전달(중앙아시아 유일의 일간신문)
 - 작년부터 분당 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교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올해 처음으로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하고 한국 교민과 고려인 후손들과의 화합 도모를 위해 고려인협회와 공동으로 합동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

< 우즈벡 한인회 면담 사진 >



- (한글 교육) 한인회는 무료 한글학당과 유료 세종학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하대-타슈켄트 대학 개설·한류 열풍 등으로 최근에는 고려인보다 우즈베크인의 한국어 수강생이 증가
 - 우즈벡 한인회(회장 김도윤) 회장은 고려인 동포 외에 현지 한국어 교육원 등을 통해 현지 교민 자녀 및 우즈베크인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등을 EBS가 무료로 제공해 줄 것을 건의



2017년 2월 17일(금)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 한인회 방문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타슈켄트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도윤 한인회장, 박상우 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재홍 부위원장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올해는 고려인 정주 80주년 및 한-UZ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서 고려인 이주역사 80주년 관련한 방송콘텐츠 개발지원등과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등을 교육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재홍부위원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등이 단절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한인회 임원진들로 부터 우즈벡 현지 한국어등 교육사정을 청취했다.

우즈벡 한인회 김도윤회장은 중앙아시아 CIS국가중에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인구가 18만 여명이고, 교민들(3,200명 정도)도 제일 많은 국가라서 고려인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의 교육방송콘텐츠등이 전달되어 질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회 박상우 부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 학생들과 한류열풍이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매우 강하고 한국으로 유학하고자 하는 우즈벡 현지 학생들도 많으므로 한국어등 교육 관련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 김재홍부위원장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머물며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와 국영방송사를 방문하여, 방송통신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우미드존 바흐티아로비치 알라모프 차관 및 방송통신 담당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는 공식일정을 보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를 방문하여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박 빅토르 고려인문화협회 회장(우즈벡 하원의원)에게 한국교육방송(EBS)의 초중고 대상 교육콘텐츠 1천 800편을 기증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6(목) 17:30~18:30, 한국의 집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김로만 회장 등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현황 〉

○ 개 요

- 1990년 모국어와 민족문화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하였으며, 1989년 설립된 고려문화 중앙이 전신기관
- 전국 20개 지방 고려인협회를 관할하는 등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고려인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등 제반 활동에 중점적 역할 수행

○ 주요활동

- '14년 12월 고려인 자체 부담으로 고려인 회관 개관하였으며, 산하에 30여 개 단체 가입
- 5년 단위로 회장 선거 실시, 현 회장은 김로만 회장으로, 2012년 카자흐스탄 국회의원으로 당선
- 매년 연례총회를 개최하며, 민족전통무예시범대회, 여성의 날 기념공연 등 다방면으로 민족문화의 부흥을 위한 사업 추진 중

○ 주요내용 요약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김로만 회장과 면담을 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정착과정, 고려인 현황,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및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
- 김재홍 부위원장은 고려인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해 EBS 콘텐츠 1,800여편을 김로만 회장에게 기증

□ 세 부 면담내용

- (개요)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1~2세대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배웠으며, 현재 3세대 이후는 카자흐스탄어와 영어를 주로 배우고 있음
 - 카자흐스탄 130개 소수민족 중 고려인이 대학 졸업률이 가장 높으며, 한국 전통과 풍습 등을 배우고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에는 1937년 중앙아시아 이주때부터 발간한 <고려일보>가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으며, 신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기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 민족 예술을 위한 <고려극장>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면담 사진 >



- (고려인 정주 80주년·수교 25주년 행사) 카자흐 고려인문화협회는 수교 25주년·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하기 위해 ① 고려인 인명사전 발간, ② 아스타나 엑스포시 비즈니스 포럼 개최, ③ 고려일보·고려극장 보존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
 - 한국에서 올해 고려인 등과 관련한 다큐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고려인 정주와 성공사례 등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 주길 바라며, 또한 카자흐 민족의 고려인에 대한 도움도 표현해 주기 바랍

- 카자흐스탄 거주 우리 민족은 '고려인'만의 언어·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게 맞으며,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도 사회 전반에서 매우 좋은 역할과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려인 80주년 이주를 맞아 많은 역사적 의미의 행사를 한국 정부와 함께하면 좋을 것이며,
- 한국 공영방송 KBS에서도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큐멘터리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시 한국주간 행사에 K-pop 공연도 준비하고 있음
- (EBS 콘텐츠 기증) 김재홍 부위원장은 카자흐스탄 김로만 고려인 협회 회장에게 EBS 교육 콘텐츠 1,800편을 기증
 -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대부분 수도 아스타나가 아닌 알마티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어,
 - 기증한 EBS 교육 콘텐츠는 카자흐스탄대사관을 통해 각 고려인 대상 교육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함

< EBS 교육 콘텐츠 >



카자흐스탄 국영방송(Khabar)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7(금) 10:30~12:30, 하바르 방송사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리나트 케르바예브 하바르방송국 부의장, Arman Seitmamyt 하바르24 사장, 안드레이 카자흐TV 사장, 산두아쉬 하바르TV 사장, Dauletbayev Chingiz 전략개발국장 등

<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Khabar 현황 >

○ 개 요

- 1995년 설립된 카자흐스탄 최초 국영 뉴스채널 방송사로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등 다중 언어로 방송을 제공
- 하바르TV, 카자흐TV, 하바르24 3개 TV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영화채널을 개국할 예정

○ 주요 특성

- 하바르TV 채널은 다중언어 방송채널(러시아어, 영어, 카자흐어)이며, 생활 정보와 뉴스, 비즈니스 관련 프로그램, 스포츠, 기상예보 등을 주로 방송
- Kazakh TV 채널은 2002년 10월 25일에 카자흐스탄의 첫 위성 TV 채널 서비스를 개국하며,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중동, 북아프리카 등 93개국에 전송하며 영어로만 방송
※ Kazakh TV의 이전 명칭은 CaspioNet
- 하바르24는 24시간 뉴스채널이며, 중앙아시아 유일한 뉴스전문채널이며, 전세계 주요 국가에 특파원을 파견(서울에도 특파원 파견)

○ 기타사항

- 케이블 TV 채널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대외 협력사는 Net Cologne(독일), Unity Media(독일), Kabel Deutschland(독일), Arax-Impex(몰도바), Turksat(터키)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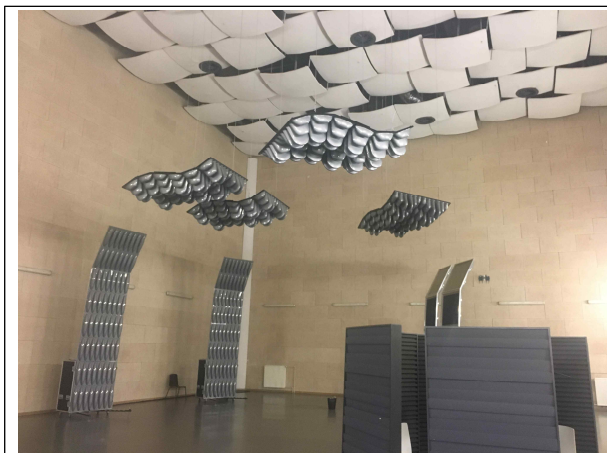
○ 주요내용 요약

-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하바르방송국을 방문하여 아스타나 엑스포시 KBS 한류공연 지원방안, 양국 방송콘텐츠 교류 방안, 평창올림픽 중계 지원 등에 대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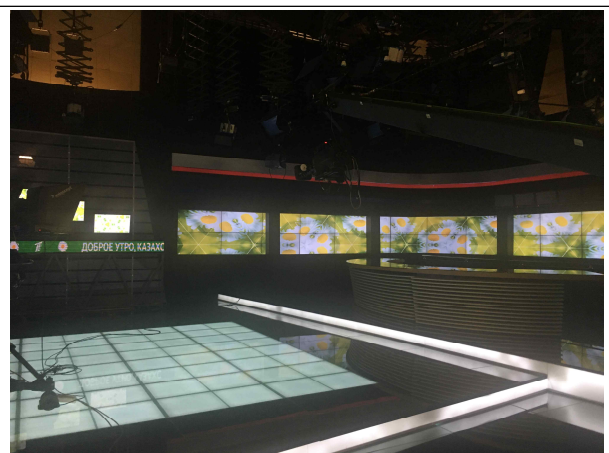
□ 세부 면담내용

- (현황) 카자흐스탄은 국영방송을 하바르방송국과 카자흐스탄방송국 2개를 운영
 - 하바르방송국은 3개 채널(하바르·카자흐·하바르24)을 러시아어·영어·카자흐스탄어로 방송하고, 카자흐스탄방송국은 카자흐어로만 방송
 - 국영방송 방송시스템은 중앙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특히 100여개의 오디오 소스를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오디오전용스튜디오는 CIS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
 - 하바르방송은 서울특파원을 파견하여 한국 소식을 정기적으로 보도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하바르 주요 시설 사진>



오디오전용스튜디오



뉴스전용 스튜디오

- (KBS 카자흐 공동 제작 등) 수교 25주년·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아 한·카자흐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콘텐츠 교류 협력 필요
 - 하바르방송국은 카자흐스탄 대표 국영방송으로 한국 공영방송과 교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프로그램의 포맷 수입에 매우 관심이 높음(토크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
 - 방통위의 프로그램 공동제작·포맷 제공 등 KBS와의 콘텐츠 교류 제안에 대해 리나트 케르타예브 하바르방송국 부의장은 언제든지 KBS측과 협의할 수 있음을 표시

- (아스타나 엑스포 관련) 아스타나 엑스포 7월초 한국 주간 행사시 KBS의 한류 공연 및 방송장비 지원 등에 대해 하바르 방송국 및 정보통신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표시
- EXPO 관련 프로그램 제작은 ① 아스타나엑스포 공사와 협의, ② 엑스포 주관 방송사 카자흐스탄방송국(국영방송) 지원, ③ 정보통신부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하바르 면담 사진>



- (교육채널) 카자흐 국영방송에서 현재 교육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교류에 관심이 매우 높은편임
-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제작진이 우수하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수입을 추진할 계획
- 카자흐는 대통령이 국민 보편적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한국 EBS 교육채널 운영시스템에 매우 관심이 높았음
- 리나트 케르타예브 하바르방송국 부의장은 EBS 시스템에 대해 한국과 추후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방문

- 일시 /장소 : '17. 2. 17(금) 15:00~16:00, 정보통신부 회의실
- 참석자 : 김재홍 부위원장 등 방통위 대표단, 아바예프 다우렌 아스케르베고 정보통신부 장관, Meyerbek Mukatov 국제협력국장 등

<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현황 >

○ 개 요

-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방송의 정책 수립과 규제 총괄 주무부처로, '16년 5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
- ※ 이전까지는 투자개발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산하의 정보통신위원회 (Communication & Information Committee, CIC)가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방송 주무부처의 역할 담당

○ 주요업무

-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 전파 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 통신인프라 현대화 및 고도화
- 정보통신기술 산업 전반 관장 및 현대 ICT 기술 도입
-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 협력현황

- 행정자치부와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가 '한-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16년 11월)

○ 주요내용 요약

-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양국 방송통신 현황, KBS의 카자흐스탄 현지 제작 지원 방안, EBS 교육채널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

□ 세부 면담내용

- (개요) 아스아바예프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문화적으로 많은 협력관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경험과 도움으로 카자흐스탄도 많이 발전되었음을 설명
- 또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
- (주요 협력사항) 김재홍 부위원장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 및 주요 직무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 수교 25주년·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추진, 아스타나 엑스포시 한국방송사 K-pop 공연 중계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주요 논의사항>

구분	논의사항	주요 결과
수교 25주년·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양국 방송사가 공동으로 고려인 이주 관련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공동으로 제작할 필요 ○ 고려인협회 주요 행사 개최 및 고려극장, 고려일보 등에 대한 카자흐 정부 지원 필요	하바르 국영방송국과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음
아스타나 엑스포 한류 공연 지원	○ 2017년 7월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시 한국의 날 행사에 한국 공영방송 KBS가 K-POP 공연 추진 ○ 공연장소, 중계차 지원 등 현지 방송 제작에 카자흐스탄 지원 필요	아스타나엑스포공사와 카자흐스탄국영방송측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음
평창동계올림픽 현지제작 지원	○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이 평창동계올림픽 현지 중계시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일본 덴쯔와 중계권 협상을 진행중, 방송사 중계단 파견예정이며 협조해 주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임

시사점

- (개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
 -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IT 기술 등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며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
 - 다만, 국가 운영 성격상 카자흐스탄은 좀 더 개방적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다수 보수적인 입장
- (방송 콘텐츠) 양국 모두 K-pop, 드라마 등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며, 특히 한국 방송사의 프로그램 포맷(토크쇼, 오디션 프로그램) 수입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
- (EBS 교육채널) 2017년까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영방송은 다수의 TV 채널을 운영
 - 한국 EBS 교육채널에 대해 소개한 결과, 무료 보편적인 교육방송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향후 해당 방송국간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
 - 방송국·정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은 채널 중심으로 향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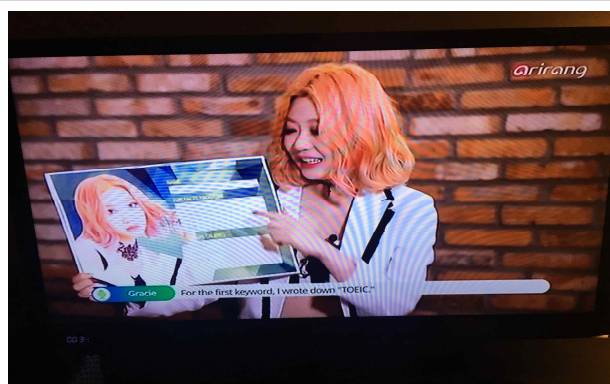
- (고려인 정주 70주년) 중앙아시아 이주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약 18만명)과 카자흐스탄(약 10만명)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소수민족 중 가장 우수한 사회적 영향력을 차지
- 양국 고려인 협회는 정주 7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다큐멘터리 제작(50분), 카자흐스탄은 고려인 인명사전 발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한국 정부 지원 협의 추진중)
- 우즈베키스탄은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한국어 강좌와 전통 문화 강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 카자흐스탄은 연해주 거주시부터 발간된 고려일보와 고려극장 보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

특이사항

□ 국내방송 송출 현황

- 출장기간('17.2.14~2.17) 중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현지 송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 호텔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 채널과 함께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 KBS월드(KBS), YTN월드(YTN)가 송출

<카자흐스탄 송출 현황>



아리랑TV



아리랑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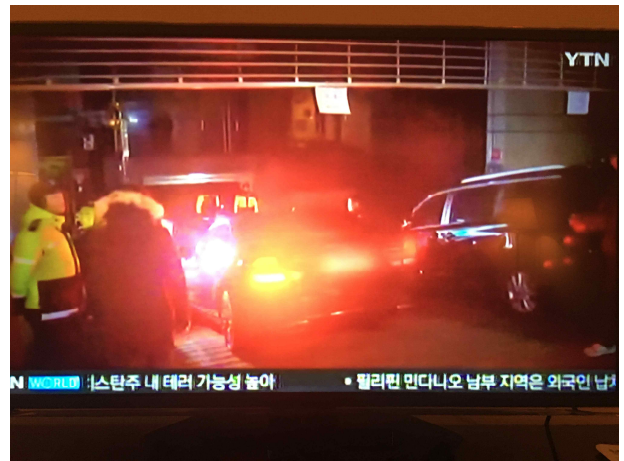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 송출 현황 >

LOTTE

TV CHANNEL GUIDE

Channel No	Contents
1	Russia24 (Russian)
2	Planeta RTR (Russian)
3	TV1 (Russian)
4	Sport_Uz (Uzbek)
5	NTV (Russian)
6	Uzreport TV (Uzbek)
7	BBC World News (English)
8	RU TV (Russian)
9	Music Box (Music)
10	Bloomberg (English)
11	YTN World (Korean)
12	Airang (Korean)
13	KBS (Korean)
14	Euro News (English)
15	NHK World (English)
16	CTC (Russian)
17	ZDF (German)
18	Dubai Sport (Arabic)
19	CCTV News (English)
20	CCTV-4 (Chinese)
21	France24 (France)
22	TV5Monde(France)
23	Yoshlar (Uzbek)
24	Toshkent (Uzbek)

채널 현황



YTN 월드



아리랑TV



KBS 월드

※ 우즈베키스탄은 Lotte City Tashkent Palace 호텔은 한국 롯데호텔이 위탁운영하고 있어 한국방송 채널이 프라임채널 대역에 배치(11번 YTN월드, 12번 아리랑TV, 13번 KBS월드)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IV. 첨부자료

출장 동정 보도자료[2.12]

2017. 2.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7년 2월13일(월) 조간(온라인은 12일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	---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

- 방송 콘텐츠 중앙아시아 진출 및 고려인 대상 한국어방송 지원과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양국 방송통신규제기구 등과 협력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 방송통신 교류 협력 및 한류 콘텐츠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3일(월) 출국한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방송통신규제기관¹⁾를 방문하여 양국 간 이동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또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영방송²⁾ 사장과 면담을 갖고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편성 현황 및 지원 정책과 교육채널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 우즈베키스탄 NTRC, 카자흐스탄 Khabar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김로만 회장을 만나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정착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역사와 한글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 교육방송공사(EBS) 교육 콘텐츠 1,800편을 기증할 예정이다. 끝.

2017. 2. 16.(목)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7년 2월 16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김재홍 부위원장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 등 고위 간부들과 요담

- 한·우즈벡 수교 25주년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 맞아
방송 공연 및 다큐드라마 제작 위한 교류협력 제안
- 한국 방송사들의 Kpop 등 한류공연에 대한 우즈벡 국영방송사의 협력 약속 받아
- 우즈벡 고려인협회 방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 논의 및
EBS 교육콘텐츠 1,800편 기증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머물며 우즈벡 정보통신기술 개발부와 국영방송사를 방문해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확대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의 우미드존 바흐티아로비치 알라모프 차관 및 방송통신 담당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은 한·우즈벡 수교 25주년이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려인(까레이스키)들의 중앙아시아 이주 및 정착 8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의미 있는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방송 공연행사나 다큐드라마 제작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최첨단 모바일 서비스인 5G와 초고화질(UHD) 방송이 실용화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알라모프 차관에게 사전 견학을 위한 초청 의사를 밝혔다. 알라모프 차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되기 전 방한하여 첨단 디지털기술의 시연을 참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즈벡 국영방송사를 방문, 히크마툴라예브 누스라툴라 부사장 및 간부들과 면담하고 "한국방송공사(KBS) 등 한국의 방송사들이 우즈벡에서 한류 공연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중계차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타진했다. 누스라툴라 부사장은 "한국 방송사들의 우즈벡 현지 공연과 방송 중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사전에 양국 정부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우즈벡 고려인들의 대표 단체인 고려인문화협회를 방문해 이들의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후손들에 대한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방안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우즈벡 고려인 인구는 18만여명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박 빅토르 고려인 문화협회 회장(우즈벡 하원의원)과 요담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초중고 대상 교육콘텐츠 1,800편을 기증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17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해 아바예프 다우렌 아스케르베고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한·카자흐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사의 누르잔 자라우키지 무하메드자노바 사장과 면담, 평창올림픽 때 방송중계에 대한 지원 협력 의사를 밝히는 한편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 방송사들의 현지 공연 등에 대한 지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끝.

朝鮮日報

2017년 02월 14일 화요일
A23면 사람들

플라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교류 협력과 한류 콘텐츠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출국했다. 두 나라 국영방송 시장을 만나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편성 현황과 지원 정책, 교육 채널 운영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파이낸셜 뉴스

2017년 02월 13일 월요일
030면 피플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협력 논의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교류 협력, 한류 콘텐츠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

머니투데이

2017년 02월 13일 월요일 025면 PEOPLE

방통위, 우즈베크·카자흐와 협력 강화 추진

김재홍 부위원장 논의차 방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13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교류협력 및 한류 콘텐츠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방문, 양국 간 이동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정책 등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영방송 사장과 만나 고려인 대상 프로그



램 편성현황·지원정책과 교육채널 운영 시스템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김로만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을 만나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정착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고려인 동포에게 대한민국 역사와 한글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EBS 교육콘텐츠 1800편을 기증할 예정이다.

임지수 기자 lis@

우즈베크·카자흐 정보통신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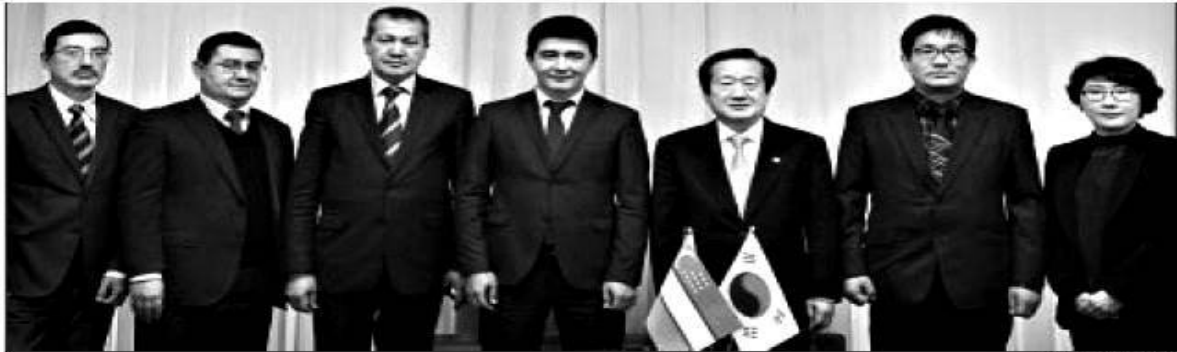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방송통신 교류 협력, 한류 콘텐츠 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출국한다.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개발부와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를 방문, 이동통신서비스·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정책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즈베키스탄(NTRC)·카자흐스탄(Khabar) 국영방송 사장과 고려인 대상 프로그램 편성 현황, 지원 정책, 교육채널 운영 시스템 등을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김로만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과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정착 과정과 현황 의견을 교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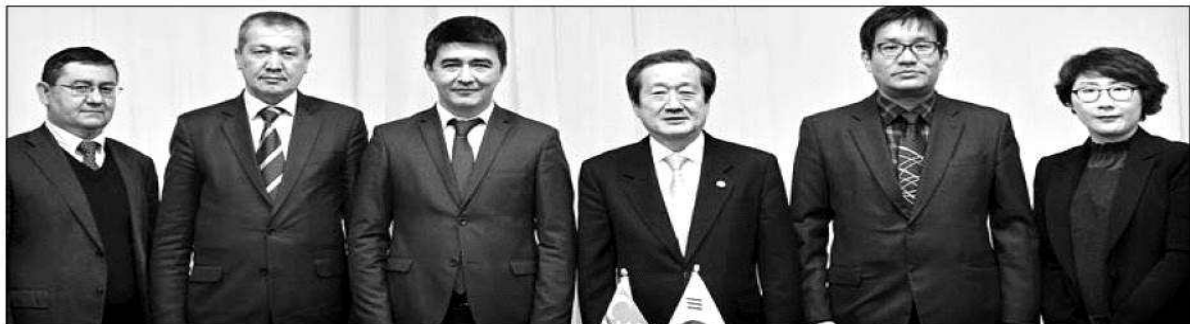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우즈베크 방송 교류협력 방안 논의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김재홍(오른쪽에서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미드존 바흐티아로비치 알라모프(오른쪽에서 넷째)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을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 담당자들과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가 한·우즈베크 수교 25주년이면서 고려인(까레이스키)들의 중앙아시아 이주·정착 80주년”이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방송 공연 행사와 다큐 드라마 제작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17일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를 방문해 아바예프 다우렌 아스케르베고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력 방안을 의논한다.

중앙일보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023면 사회



방송통신 교류 협력차 우즈베키스탄을 찾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넷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우즈베크·카자흐와 협력 논의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15일까지 수도 타슈켄트에 머물며 이 나라 정보통신부, 국영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의 방송통신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통신부 미드존 바흐티아로비치 알라모프 차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25주년이자 고려인 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연,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평창 겨울올림

픽은 5세대(5G) 모바일 서비스와 초고화질(UHD) 방송이 실용화되는 무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알라모프 차관 초청 의사를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단체인 고려인문화협회를 방문해 이들의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상황, 18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훈** 기자 han.junghoon@jtbc.co.kr



방통위 부위원장 우즈베크 방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우미드존 바흐티아로비치 알라모프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가운데)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3번째)은 알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왼쪽 4번째)과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우즈베크와 협력 확대”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우즈베키스탄(우즈베크) 정보통신기술개발부와 국영방송사를 찾아 방송·통신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우미드존 바흐티아로비치 알라모프 우즈베크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 및 방송·통신담당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수교 25주년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을 맞아 방송 공연 및 다큐드라마 제작을 위한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크 국영방송

사를 방문, 히크마틀라예브 누스라틀라 부사장 및 간부들과 면담하고 한국 방송사들의 K팝 등 한류공연에 대한 우즈베크 국영방송사의 협력을 약속받았다. 15일에는 우즈베크 고려인 대표 단체인 고려인 문화협회를 방문, 이주 8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초·중·고 대상 교육콘텐츠 1800편을 기증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우즈베크에 이어 17일 카자흐스탄을 방문, 아바예프 다우렌 아스케르베고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지수 기자 lis@

한국-우즈베크, 방송·통신 교류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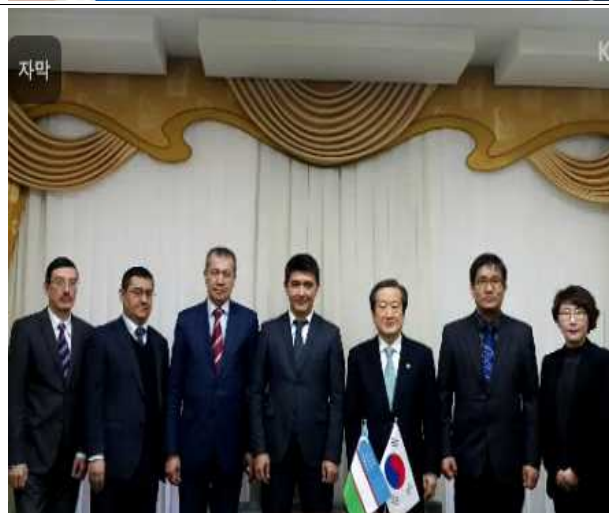
(입력 2017.02.16 (19:32) | 수정 2017.02.16 (19:36) 뉴스 7)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우즈베크 정보통신기술개발부 등을 방문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연과 드라마 제작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일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방송·통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홍 부위원장, 한-카자흐스탄 방송교류

(채희선 기자 작성 2017.02.18 07:58 수정 2017.02.18 09:04)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17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방송통신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인 하바르 방송국 이사회 부의장을 만나 한-카자흐스탄 수교 25주년과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는 등 콘텐츠 교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때 카자흐스탄 선수단 방송 중계와 취재 지원을 약속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TV조선 뉴스 7

방통위, 우즈베키스탄에서 드라마 공동 제작

박지호 기자 / 등록 2017.02.17 07:14



[앵커]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공동으로 제작됩니다. 한류 공연도 하기로 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방송 교류가 더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리포트]

우즈베키스탄에 한류가 도입된 지 12년. 드라마나 대중음악이 주종입니다. 하지만 이젠 콘텐츠를 단순히 수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동제작 이상의 수준으로 공고하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고려인 이주 80주년과 한·우즈벡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공동제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류 공연을 하기로 하고, 기술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은 5G 이동통신과 초고화질 방송이 실용화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 인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순방단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오늘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방송통신 교류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